



“떡방 시간여행 함께 떠나요”

tvN '식샤를 합시다3: 비긴즈'
3년만에 컴백...윤두준·백진희 출연
2004년·2018년 먹거리 변화 그려



“세 번째 시즌인데 개인적으로는 시즌3이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윤두준)
“식샤를 합시다 팬으로서 시즌3에 참여하게 돼 영광입니다.”(백진희)
오는 16일 첫 방송을 앞둔 tvN 월화극 '식샤를 합시다3: 비긴즈'의 주인공 윤두준(29)과 백진희(28)가 각각 시즌3에 참여하게 된 소회를 밝혔다.
윤두준은 이번에도 떡방(떡을 방송)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구대영을 연기하며, 새롭게 합류한 백진희는 새로운 '미식 여신'으로 거듭날 이치우를 맡았다.
윤두준은 10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시즌3이 된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감화도 새롭다”며 “기대가 많이 되고, 빨리 첫 방송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구대영이 2004년으로 돌아가 지우를 만나면서 미식 애호가 가 된 사연을 소개할 것”이라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부족한 점도 많지만 시즌이 지속해 외국 시

즌제 드라마처럼 대표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며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다. 노인이 될 때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웃으며 말했다.
윤두준은 아울러 이번 작품이 드라마로서는 입대 전 마지막이 될 것 같으며 “잘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최규식 PD는 “시즌4를 한다면 윤두준 씨가 제 대할 때까지 당연히 기다려야겠다. 드라마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진희는 “지우는 2004년, 스무살 때는 풋풋하고 마음도 잘 못 숨기는 순수한 친구였지만 14년간 일상에 찌들어 살면서 자기감정도 잊고 평범한 소시민이 된 인물”이라고 맡은 배역을 소개했다.
그는 또 “요새 다양한 떡방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보인다”면서 “저희는 2004년과 2018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기대되는 음식으로는 막창을 꼽았다.
3년 만에 세 번째 이야기로 찾아온 '식샤를 합시다'는 시즌1의 겨울, 시즌2의 봄에 이어 이번엔 처음으로

여름에 방송하게 됐다. 무더운 날씨와 뜨거운 햇볕에 입맛 없는 계절, 시청자의 입맛을 되살려줄 작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시즌3에서는 평양냉면을 시작으로 여름을 상징하는 대표 먹거리들이 다수 등장할 예정이다.
또 부제에 '비긴즈'가 붙은 이유는 구대영이 남다른 음식 철학을 갖게 된 계기를 풀어낼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제작진은 설명했다.
이 밖에 인물들의 스무살 대학 시절인 2004년과 서른넷 직장인인 2018년, 두 가지 시점의 이야기가 함께 진행돼 시청자의 공감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대본 집필은 시즌1과 시즌2에서 함께한 임수미 작가가, 연출은 시즌2의 최규식 PD가 맡는다.
윤두준과 백진희 외에 이주우, 안유연, 김동영, 병헌, 서벽준 등도 출연한다. 시즌2의 여주인공이었던 서현진의 카메오 출연도 예고됐다.
오는 16일 밤 9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활약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골키퍼 조현우를 비롯해 김영권, 이용, 이승우가 MBC TV 예능 '라디오스타'를 찾는다.
MBC TV는 11일 밤 11시 10분 태극전사들을 초대해 '4년 후에 만나요 제발'이라는 이름의 특집으로 105분간 방송한다고 10일 소개했다.
특히 조현우는 독일전에서 유효슈팅 6개를 막아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 골키퍼 데 헤아와 비교될 만큼 화제가 됐다. 그는 독일전 승리 후 CF 제의만 20개 이상 받은 사실을 알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또 독일전을 앞두고 숙소에서 압박감과 무게감에 홀로 영영 울었다는 뜻밖의 고백을 하기도 했다.
조현우가 이 같은 중압감을 이겨내고 독일전에서 활약한 것과 관련해 옆에 있던 김영권과 이용은 '뜻밖의' 평가를 해 모두가 포복절도했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또 방송에서는 수비수였던 조현우가 골키퍼로 전향한 사연과 함께 뒤늦게 빛을 본 그의 선수생활이 재조명될 예정이다.
네 명의 태극전사들은 가수 부럽지 않은 노래 실력도 선보였다. 특히 조현우는 녹화장을 찾은 아내를 위해 세레나데를 부르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번엔 예능...태극전사 '라디오스타' 출격 조현우·김영권 등 출연 오늘 특집 방송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활약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골키퍼 조현우를 비롯해 김영권, 이용, 이승우가 MBC TV 예능 '라디오스타'를 찾는다.
MBC TV는 11일 밤 11시 10분 태극전사들을 초대해 '4년 후에 만나요 제발'이라는 이름의 특집으로 105분간 방송한다고 10일 소개했다.
특히 조현우는 독일전에서 유효슈팅 6개를 막아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 골키퍼 데 헤아와 비교될 만큼 화제가 됐다. 그는 독일전 승리 후 CF 제의만 20개 이상 받은 사실을 알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또 독일전을 앞두고 숙소에서 압박감과 무게감에 홀로 영영 울었다는 뜻밖의 고백을 하기도 했다.
조현우가 이 같은 중압감을 이겨내고 독일전에서 활약한 것과 관련해 옆에 있던 김영권과 이용은 '뜻밖의' 평가를 해 모두가 포복절도했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또 방송에서는 수비수였던 조현우가 골키퍼로 전향한 사연과 함께 뒤늦게 빛을 본 그의 선수생활이 재조명될 예정이다.
네 명의 태극전사들은 가수 부럽지 않은 노래 실력도 선보였다. 특히 조현우는 녹화장을 찾은 아내를 위해 세레나데를 부르기도 했다.
/연합뉴스

조권 8월 6일 입대...“시간·장소 비공개”

그림 2AM 출신 가수 조권(29)이 다음 달 입대한다.
10일 가요계에 따르면 조권은 8월 6일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
조권은 2008년 JYP엔터테인먼트에서 2AM으로 데뷔해 '죽어도 못 보내', '전할 바지 않는 너에게', '이 노래' 등의 곡으로 사랑 받았으며 솔로 음반으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11월 큐브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한 뒤 올해 1월 싱글 '새벽'을 발표했다.
또 일찌감치 넘치는 '기'로 '갑갑'이라 불리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누볐으며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러시아 3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밥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이리와 안아줘(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재) 50 UHD 숨터(재)	00 당신의 하우스헬퍼(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이리와 안아줘(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한국인의 밥상(재)	00 속보이뉴스TV 인사이드(재)	30 TV속의 TV	
2	40 다큐 공감(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30 헬로키즈 동물교실	00 뉴스브리핑
3	35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하이라이트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프리파라 3 55 뽀뽀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남북통일 여자농구대회
4	00 사사건건	00 여유만만	25 비밀과 거짓말(재)	45 생활의 달인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탐정 토비와 테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UHD 한식의 마음(재)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건강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55 지식 토크쇼
7	00 KBS 뉴스 7 35 미니디큐	50 인형의 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KBS 순천 개국 42년 토론회 <여순사건 70주년, 다시 진실을 묻다> 55 UHD 숨터	00 당신의 하우스헬퍼	00 이리와 안아줘	00 훈남정음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질병 X, 바이러스를 방어하라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로맨스 패키지 1~2부
12	30 코리안 지오그래피 플러스 55 인간극장 스페셜	1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기획 세상의 모든 다큐	4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매운 돼지갈비찜과 오이부추 절임>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프리카 <중국 비경 서허궤유람기 황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엄마 까투리
06:00 한국기행(재) <물 만난 여름 3부 다툼을 부탁해>	12:00 EBS 정오뉴스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7:00 융합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화산섬의 비밀
07:30 꼬마버스 타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30 EBS 뉴스
08:00 당동맹 유치원1~2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재)	19:50 초이슈
08:30 미니특공대 X	14:30 코코몽3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한시기행9 황하(黃河)2 3부 용문(龍門)에 오르다>
08:45 말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슬기로운 여름생활 3부>
09:00 엄마 까투리	15:15 파프리카	21:50 EBS 다크프라임
09:30 원더볼즈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2:45 극한직업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3:55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0:30 한국기행(재)	16:15 융합한 소방차 레이	
	16:30 말랄라 뿌우(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배려에 힘입어 풍성함을 누리는 운로이다. 48년생 상호 공존하는 성공을 만들어 가자. 60년생 지나치다 면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72년생 아랑곳 하지 말고 소신껏 행하자. 84년생 관심 있게 살펴본다면 파악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2, 60	午 42년생 재물이 늘어 날 수도 있는 운세이다. 54년생 가 까سو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66년생 실망하여 허탈해질 수 있다. 78년생 단순하게 반복한다거나 확실히 하려면 발전을 도모하기 힘들어 질 것이다. 90년생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행운의 숫자 : 98, 95
丑 37년생 시기를 놓치고 나면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을 것이다. 49년생 지극한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61년생 희망을 가져도 좋은 시기이니라. 73년생 현 태에서 벗어나고 봐야 한다. 85년생 잊고 있었던 것을 연상시켜주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7, 87	未 43년생 입장이 곤란해지겠다. 55년생 소상히 듣고 판단하라. 67년생 피장파장이니 의미는 없다. 79년생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는 여자는 총분하니 불안해 할 필요도 없고 밤샘해서도 아니 된다. 91년생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라. 행운의 숫자 : 79, 03
寅 38년생 본인이 예상해 왔던 바에 틀림없이 적중할 것이다. 50년생 때를 맞추어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62년생 의도대로 실행한다면 무난하리라. 74년생 보람찬 일들로 인해서 살맛나겠다. 86년생 새로운 것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행운의 숫자 : 74, 41	申 44년생 실효적인 추가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56년생 회동이 있을 수다. 68년생 부화뇌동하다가기는 곤란해질 수도 있다. 80년생 점점 좋은 조건으로 변화기는 성구이다. 92년생 새싹이 찬 서리를 만나는 이치이니라. 행운의 숫자 : 90, 22
卯 39년생 자신이 기대 했던 바보다 효과가 배가하게 될 것이다. 51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이다. 63년생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뒤따라야 없다. 75년생 가급적 절제하는 것이 지혜롭다. 87년생 쉽게 속을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자. 행운의 숫자 : 17, 38	酉 45년생 대박 나겠다. 57년생 새로운 것보다는 옛것이 더 값있다. 69년생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한다. 81년생 생 탈감지 않은 모양새가 되더라도 의연히 대응하자. 93년생 서로 간의 처지가 뒤바뀔 수도 있으니 처세를 잘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3, 72
辰 40년생 다양성에 기초한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52년생 무리하지 않음이 옳다. 64년생 불명확하므로 지켜봐야겠다. 76년생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는 법이다. 88년생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히 요청 된다. 행운의 숫자 : 70, 75	戌 34년생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인다. 46년생 도움이 될 것이니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 58년생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재고해야겠다. 70년생 돈 쓸 일은 늘어지지만 들어 올 곳은 한정적이다. 82년생 생산적인 관계가 되도록 유도하자. 행운의 숫자 : 22, 99
巳 41년생 당일에 마무리 하는 것이 이롭다. 53년생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65년생 주의 한 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77년생 사리에 밝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하라. 89년생 노력이 일관되어야 성취한다. 행운의 숫자 : 39, 97	亥 35년생 겸손함과 겸소함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47년생 맥 짚지게 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59년생 액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산적이다. 71년생 자연 발생적인 현상에 주목하자. 83년생 손재수가 비치니 제반사에 조심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0, 5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화영” ☎010-9790-8237